

## 대한민국은 지금 ‘프레임 전쟁’ 중

‘제1회 트루스 아카데미’ 울산대 이정훈 교수 강연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애국 청년들의 모임 트루스포럼이 서울대에서 ‘제1회 트루스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치철학과 국제정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22일 SNU트루스포럼이 주관한 첫날 행사는 “前운동권 활동가들에게 듣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열렸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을 통해 교회 해체 운동을 진행하다 회심한 이정훈 교수(울산대, 서울대 박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좌우 대립’과 관련된 “프레임 전쟁”이라 일컬고, 저들이 짜놓은 빗에 걸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승의 전략은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최근 대한민국에 유행(?)하고 있는 ‘개헌’ 논의를 예로 들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분권형 개헌’과 관련, 대중들은 반대 논리로 “연방제를 기초로 깔고 있어서”라는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입증 방법이 있느냐”고 묻고, 그런 반대가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라 했다. 그런 ‘대답’은 ‘우리끼리’는 해도 ‘밖’에다는 하면 안 될 이야기라는 것이다.

분권 문제 관련, 그는 “핵심은 재정문제”라며 “지역의 착각은, 분권만 하면 돈이 많아지고 동네가 잘 살줄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들은 미디어를 통해 3번 정도 접하면 그 문제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세뇌”라며 “분권=좋은 것=우리 동네 잘 사는 것” 식의 프레임이 짜여지고 있는 것”이라 우려했다.

이 교수는 “분권형 개헌 문제가 개임 흥행을 중이다. 그런데 개헌세력=개헌세력이 짜여있다”고 지적하고, “이 프레임 안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 자유민주주의나 동성애, 이슬람 등 모든 것이 적폐가되고 만다”면서 “현재 2030들이 저들의 실체를 알고 분노하는데, 자칫 그 분노가 잘못 쏠릴 수 있다. 그럼 저들이 또 이기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 문제가 개임 흥행을 중이다. 그런데 개헌세력=개헌세력이 짜여있다”고 지적하고, “이 프레임 안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 자유민주주의나 동성애, 이슬람 등 모든 것이 적폐가되고 만다”면서 “현재 2030들이 저들의 실체를 알고 분노하는데, 자칫 그 분노가 잘못 쏠릴 수 있다. 그럼 저들이 또 이기고 있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분권이 왜 나쁜지은 이를 기할 때,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그런 대답은 사실 못해도 된다. 프레임의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에서 제



고 했다. 그는 “프레임 전쟁의 핵심은 세뇌인데, 매스미디어를 장악하지 못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뜨거운 감정을 가지는 안 된다. 프레임을 깨려면 지혜로워야 한다”고 했다.

그럼 어떤가? 이정훈 교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래 개헌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그는 “절

저하게 애초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개헌 반대가 아니라 개헌 찬성, 제대로 된 개헌 운동을 해내야 한다”면서 “좋은 개헌 vs 나쁜 개헌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것은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 교수는 “저들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저들에게 대한민국은 생기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역설적으로) 체제 속에 들어와 고위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역사가 고입증해 봤다”라고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개헌 논의 자체가 저들의 프레임”이라 지적하고, “다만 전략적으로 싸우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면서 “한국에서 제

일 중요한 것은 안보이다. 지금은 개헌 할 때가 아니다. 혼자서는 어렵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미국이 움직여 주면, 개헌 논의가 쑥 들어갈 수도 있다. 시민단체들이 전략을 갖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정훈 교수는 “사법부 정치화 시도는 결코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되며, 한미동맹은 결코 건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 정부가) 그 2가지를 열심히 하더라. 망조의 길로 가고 있다”며 “우리 미래,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데, 우리 대에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주면 안 된다. 그러려면 제대로 싸워야 한다. 스마트(Smart)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건국절 논란과 관련, 이 교수는 “저들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저들에게 대한민국은 생기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역설적으로) 체제 속에 들어와 고위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역사가 고입증해 봤다”라고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 교수는 “대안을 내놓고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것은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 교수는 “저들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저들에게 대한민국은 생기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역설적으로) 체제 속에 들어와 고위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역사가 고입증해 봤다”라고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것은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 교수는 “저들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저들에게 대한민국은 생기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역설적으로) 체제 속에 들어와 고위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역사가 고입증해 봤다”라고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는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는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는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는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는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는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는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는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는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는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는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는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는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는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는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짐작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 헨리 조지의 토지법은 성경적인가

### 창조신학연구소장 조덕영 박사의 '창조신학칼럼'

I. 성경적 토지법이 있는가?



창조신학연구소장 조  
덕영 박사

지키지 않는 이유는 이들 절기들이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슨 토지법을 찾으려 하면 안 되는 이유다. 다만 성경이 가르치려는 포괄적 세상 이해와 인간 이해를 통해 성경적 토지법과 세상 경제학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구체적 성경 토지법이란 없다.  
초월계시 성경은 내재(内在)의 토지를 향한 법이 전혀 아니다.

2. 회년의 본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안식일과 관련된 법이다.

따라서 회년의 문자적 적용은 신앙적 신정국가이나 적용될 수 있는 법이다. 역사적으로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으며 바벨론 유수 이후 유대 탑비들조차 이 법을 폐지하였다.

3.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은 성경적 토지법이 아닌 실재적으로는 토지 이외 모든 세금면제를 주장한 토지 유일세제주 의 토지세 만능주의법이다.

탐욕적 인간은 국가든 개인이든 누구도 토지의 공적 주관자나 주인이 될 수 없다.

4. 그래도 굳이 성경적 토지법을 찾으라면 이웃과 약자 배려에 대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법>이 있을 뿐이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토지법을 가르치려는 책이 아니다. 인간과 우주의 근원을 알리고 인간의 근본적 타락과 영원한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런 면에서 헨리 조지의 토지법에 대해 헨리 조지가 기독교인으로 그의 토지법도 성경적이라고 우기는 것은 대단히 단편적인 판단이다. 그나마 토지에 대한 언급을 보여주는 회년의 본질도 토지법이 아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된 영생의 소망으로서의 회년을 보여준다. 안식년과 회년을 포함하여 성경은 경제학에 도움을 줄 만한 무슨 대단한 비결이 숨어있는 그런 책이 아닌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안식년과 회년뿐 아니라 유월절, 나팔절, 오순절, 속죄일, 맥주절, 장마절 등을 문자적으로

국에서 강연 활동. 두 차례 체포 및 잠시 투옥

15) 1886년(47세) 165개 노동조합 결성의 연합노동당 주도로 뉴욕 시장 출마, 관세 철폐와 자유무역 주장 역설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출간

16) 1889년(50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유명 연설, 런던에서 마르크스주의자인 하인드먼과 토론

17) 1890년(51세) 호주, 뉴질랜드 강연 여행

18) 1891년(52세) 교황 회칙인 <노동 현장 Rerum Novarum>에 반대

19) 1892년(53세) 토지 사유를 반대하다가 견해를 바꾼 허버트 스펜서를 비판한 <갈피를 잃은 철학자> 출간

20) 1897년(58세) 지공주의 전파를 위해 의사 권리를 물리치고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투표장을 나흘 앞둔 10월 29일 사망. 10만 여명 조문

21) 1898년 사후 <정치경제학> 출간

### III. 헨리 조지 평가(간략사)

헨리 조지(1839-1897)는 미국에서 태어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대륙횡단철도가 부설되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산 인물이다. 소년 시절부터 온갖 직업을 전전하면서 훌륭한 가난을 체험한 독학의 경제학자 이전에 언론인이며 정치인이요 대중연설가였다. 그의 사상이 치열한 학문적 전개보다는 주로 저널리스트 성격의 다양한 글들과 저서와 연설문의 형태로 나타난 이유다. 또한 비록 그가 신앙인이라는 하였으나 신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도 아니었다. 이 같은 그의 사상이 가장 종합적이고 적나라하게 나타난 책은 1868년(29세) <샌프란시스코 헤럴드>의 뉴욕특파원, 뉴욕의 극한 사회와 지독한 빈곤이 공존하는 현실 목격

10) 1871년(32세) 나중에 <토지와 빈곤>으로 발전하는 <우리 토지와 토지 정책 our Land and Land Policy> 발간  
12) 1877년(38세) <진보와 빈곤> 집필 시작, 막내딸 출생하다.  
13) 1879년(40세) <진보와 빈곤> 탈고, 출판사 거부로 자비 출판, 그 뒤 4년간 영미 두나라에서 수십만부 판매. 10여개국 번역, 19세기 말까지 영어로 쓰인 책 가운데 논픽션 분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는 칭호를 받음  
14) 1881년(42세) 뉴욕으로 이사, 아일랜드계 언론 특파원으로 아일랜드와 영

IX. 헨리 조지 사상의 정수 <진보와 빈곤>

### 1. 핵심 요지

이 책에서 헨리 조지의 관심은 산업 혁명 이후 생산력은 증가했음에도 왜 임금은 최저 생계 수준에서 머물러있는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질문이었다. 이를 문제

에 대해 ‘임금은 자본에서 나온다’는 임금기설과 인구 증가로 설명하는 멜더스의 인구론에서 찾으려는 기존 경제학을 비판하며 헨리 조지는 <토지사유제>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주자가 토지가치를 차지하고 토지 토기까지 조장하는 <토지사유제>는 곧 진보와 빈곤을 유발하는 진정한 요인으로 토지 사유를 폐기하고 토지 공유제로 급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헨리 조지 토지법의 묘지였다. 다만 토지사유가 관습화된 나라에서는 토지 사유를 허용되어 해마다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인 토지대금을 정부가 환수(이른바 토지가치 세금, land value taxation)하면 된다.

그럴 경우 다른 모든 조세는 면제해도 되며, 그렇게 한다면 생산은 자연히 늘고 분배정의는 실현되고 인류는 더 고상한 문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헨리 조지의 생각이었다. 마르크스가 토지와 자신의 사유화를 모두 금하고 공유화해야 한다고 본 반면 헨리 조지는 토지만 공유하는 입장이었다. 즉 공산, 사회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모두 물수 국가 소유화하는 반면 헨리 조지의 지공(地公)주의는 자본은 사유화하고 토지만 공유한다. 헨리 조지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사상, 정치경제학 논쟁을 자주 벌인 이유다.

2. 시대적 산물로서의 헨리 조지 사상 대학 교양 수준의 경제학 원론만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이 같은 헨리 조지의 토지법이 마르크스의 사상처럼 산업 혁명 이후 사회와 산업 경제의 모순 속에 나타난 시대적 산물을 알 수 있다. 산업 혁명 이후 빈곤 문제의 해결과 경제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헨리 조지의 토지 공유제는 유물론자들의 사상처럼 경제전문가들의 많은 경제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많은 정부들은 토지가치를 반영한 세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거두어들이고 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토지 가치를 반영한 세금은 조지의 독창적 주장도 아니다. 대부분의 경제학 이론이 일부 타당하고 경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처럼 헨리 조지 경제학도 그런 부류인 것이다.

### V. 헨리 조지 사상 평가

1. 경제 문제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헨리 조지(경제 문제의 두 가지 복잡 요

### 소·자연과 인간

헨리 조지 사상이 대중들의 인기를 끈 반면 비판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경제 문제를 너무 극단적으로 단순화했기 때문이다. 기독교나 세상 정부가 헨리 조지 사상을 문자적, 긍정적으로 무조건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생명체와 유사한 경제가 헨리 조지 식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마치 모든 생명이 한 가지 운동법이나 약으로 건강해지거나 치유될 수 없는 것처럼 경제도 복잡한 유기체 같은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복잡 요소가 작용한다. 그 복잡 요소란 자연 요소와 인간 요소이다. 토지는 환경오염,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 재난을 통해 토지 가치가 급격하게 변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를 바꿔는 토지 가치를 재평가하고 세금을 매겨야 할 장본인인 동시에 스스로 토지 가치를 전쟁이나 폭력이나 쓰레기나 오염을 통해 훼손해 시킬 수도 있는 당사자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은 얼마든지 본래의 토지 가치를 단숨에 뒤집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변덕스럽고 탐욕적인 인간적 요소가 개입된다는 점이 토지 가치를 변동시키는 핵심적 요소인 셈이다. 전 UN사무총장 코피아난이 임명한 경제 발전 문제에 대한 세계 23인의 Adviser 중 한 사람�이었던 고 박을용 박사(전 한동대 부총장)의 경제 발전론 근간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이 바꿔야 한다’는 사상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 2. 토지공유화의 보기 2. 북한: 또 다른 토지 공유국가

1) 탐욕의 인간: 토지를 공유화한다 해 그것을 다행과 관하는 주체는 바로 탐욕의 인간이다. 즉 토지를 하나님이 아닌 진보든, 보수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대주주든 공산독재자든 인간은 스스로가 또 다른 사유화의 도구로 다를 뿐이다.

2) 토지공유화의 보기 1. 중국: 오늘날 토지 공유화가 문자 그대로 가장 잘 유지되고 있다는 중국이 과연 고상하고 평등한 나라가 되었는가? 중국 최고 도시 상하이 뒷골목을 가보라! 필자는 상하이 뒷골목을 보면서 화려한 뒤에 숨어 있는 1960년대 우리 사회 어두운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풍경이 1960년대 고향의 과거로 돌아온 듯 한 포근한 향기(?)를 불러일으

킨 것과는 또 다른 뉘앙스로 다가왔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큰 빈부 격차와 불평등을 상하이 뒷골목은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었다. 밀도 그대로 중국 토지법을 그리워하는 미숙한 정치인이 있다면 차량으로 스쳐가듯 보지 말고 직접 도보로 다니며 중국 최대도시 뒷골목을 직접 다녀보라고 권하고 싶다! 중국이 과연 세계 최고의 토지공유제로 고상한 도덕적 국가가 되었는가? 빈부 교차는 없는가?(대도시 중산층 아파트 2017년 현재 약 30억 원 내외) 외국 기업에 대한 불평등 조약, 특히 저작권 무시, 주변 국가에 대한 강대국으로서의 정치경제적 위협, 저임금, 환경 오염 방지, 비도덕적 수출 물품들 반출,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종교, 사이버 통제와 억압 등 다양한 꼼수로 잡시집간 성공한 듯 보이는 개발독재의 모습 아닌가?

3) 토지공유화의 보기 2. 북한: 또 다른 토지 공유국가 북한: 여전히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종교, 거주, 이전, 심지어 일부 정치, 직업 선택, 여행 자유, 결혼 자유조차 없는 억압정권이 아니라 토지 공유화뿐 아니라 초강대국 중국과 러시아의 막대한 원조를 받은 북한 경제는 부흥했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토지와 자본만 공유하면 만사통통이라는 공산주와 공산주체 귀족이 토지의 주인이 된 나라는 참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논리로 본다면 공산주체 귀족은 토지를 모두 공유화하고 인류 기본 자유까지 억압하는 자본주의의 재벌하고는 비교조차될 수 없는 악덕 대재벌 귀족의 모습을 보인다. 그런 대재벌에게 현찰을 선물하고 심지어 인구조사 비용을 대고 온갖 금품을 선물한다는 것은 소위 윤락포주 어금니 아빠에게 기부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미련한 행위일 뿐이다. 그런 악덕 공산귀족대재벌에게 굳이 기부하고 싶으면 반드시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기부했으면 한다. 그들 공산주체 귀족들은 당신들보다 훨씬 부자들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소유인 국가공적자금이 아닌 자신들의 귀한 돈을 각출하여 둘수록 많이 보내면 된다. 공산귀족들은 정말 고맙다고 조롱하며 웃을 것이다. 굳이 공적자금이 필요한 곳을 찾는다면 공산주체 귀족 악덕 대재벌이 통치하는 북한이 아닌 북한을 털출해 떠도는 연악한 탈북자들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토지와 관련 없는 소득 문제

토지와 관련 없는 소득 문제

## My KIDS

자기만의 어린이 카드를 만들어주세요!

김제아 친구들과 함께하는  
봉어빵 차수

리뷰: 8점  
국고: 500원

당신의 미친한 아이들이  
최 놀란 어린이 카드를  
만들어주세요!

어린이 카드 보기

① 컴퓨터에 ‘월드비전 마이카드’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카드

② 모바일에 mykids.wv.or.kr을 접속해주세요.

mykids.wv.or.kr

온라인 후원을 해주세요

1 월드비전 Family Cards 카드에 아동 채드가 있는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동의 친구를 소개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동이 사는 지역을  
선택하여 아동의 친구를 보내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1회 미친인아동 보육비를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후원을 해주세요

1 월드비전에서 후원금은 자녀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보건, 식수, 교육 및 아동의 서비스를 합니다.

2 아동후원은 한 아동의 배고픔을 날려 줄 수 있습니다.  
한 아동이 희망합니다.

해결된다는 헨리 조지 사상은 경제가 생물 같다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미숙함이라고 필자는 본다. 세상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문간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발생하고 있다. 즉 토지보다 훨씬 더 큰 이윤을 제공해주는 일반 상속, 비트 코인과 같은 사이버 영역, 주식 상속, 금융 소득, 특허 저작권 수입에 대해 토지가치세 만능주의자들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명 '흙수저' 출신이 토지 없이 계약 개발과 주식 상장으로 단숨에 시가로 재계 10위권에 대거 진입하는 시대다. 5천년 바둑 지식은 단지 36 시간 만에 '슈퍼 알고고'가 과학하여 인류 최강 기사에게 연전연승하는 시대다. 선배 의사에게 폭력을 당하며 어렵게 배운 의학 지식이란 해마다 쏟아지는 새로운 수만 편의 논문과 정보 속에 인공 지능의 정보와 발전의 1만분의 1도 의사들이 따라잡기 벅찬 시대가 되었다. 더구나 인공 지능에 능한 보통 사람들도 웬만한 의사 못지 않은 의학적 판단력을 가진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의사, 변호사, 세무사의 지식이 인공지능만 훨씬 못 하니 국회의원 의사, 법전문가, 세무전문가를 모두 공유화하여 인공 지능과 컴퓨터에 능통한 단순 공무원으로 모두 대체해야 한다면 이를 전문가들이 수급할까? 사실 이를 영역도 토지와 다를 바 없다고 보고 공유 영역으로 포함해야 유토피아가 온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괴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토지사유화 금지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헨리 조지 사상은 산업 혁명 시대의 산물이었을 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혀 맞지도 않을뿐더러 성경적 사상은 더

더욱 아님을 신앙과 경제학에 미숙한 일반인들도 이제 조급은 알 것이다. 기독교 사상에서는 만민이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만능 세상 법은 없다. 토지 공유가 좋은 차, 좋은 휴대폰, 좋은 집을 선물하지는 않는다. 기독 종말론은 인간 종말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래서 땅의 산물이 아닌 은총의 삽자가 필요한 것이다. 토지 공유법은 인간 질병의 문제, 지역 호기심의 문제, 생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탐욕의 문제, 심판의 문제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인간 육신의 정욕, 안락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헨리 조지면 다 된다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자신의 무지와 무식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VI. 나가면서(굳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찾으려 한다면)

헨리 조지의 토지법은 분명 성경적 토지법이 아니다. 토지에 대한 만사형통의 성경적 법이란 없다. 다만 땅을 다루는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 보다 나은 땅의 법에 대한 성경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신 땅에 대한 법을 오늘날에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희년의 법은 하나님의 법들이다. 그러나 희년의 법은 하나님에게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한 오해임을 이미 살펴보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의 법을 받았다고 오늘 날도 성경대로 형수를 죽은 형 대신 취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

늘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만한 옷감은 별로 없을 듯하다. 땅에 대해서도 땅 자체가 아니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요구와 정신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희년 자체가 아니라 희년의 정신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할 때 땅에 대한 욕심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토지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토지 자체의 이익보다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즉 정부가 토지 자체의 이익보다는 토지 이용 가치 증대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한다면 자연스럽게 불로소득의 방지와 성경적인 모습의 토지 정책이 성립되는 것이다.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한동안 홍콩의 주민들에게 땅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팽배한 적이 있었다. '언젠가 우리의 땅은 중국 정부에 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땅 자체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모든 이들의 일치된 생각이었다. 놀랍게도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되는 그날까지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이상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땅에 대한 자유와 욕심의 표기가 오히려 그 땅을 성경적 원리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들 어버린 역설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또 다시 홍콩이 이상하다. 좁은 땅 홍콩 사람들의 삶이 만만치 않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들에게는 땅의 천국이고 부동산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땅의 지옥이 되어 버렸다. 홍콩인들에게 다시 땅의 탐욕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

문이다. 물론 넓은 땅을 가진 미국인들이라고 탐욕이 없지 않다. 땅이 아닌 인간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토지 정책은 땅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포기하기는커녕 유

도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 아마 정치인들 스스로 땅에 대한 욕심이 과도함으로 자신들의 이권이 걸린 문제에 협사리 성경적 입법을 할 리가 없었다. 땅에 대한 사회 구성원 전반의 과도한 욕심은 그대로 서민들의 고통과 심지어 교회 개척의 어려움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알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닌 정부가 땅의 주인(?)이 되는 토지공개념 실현? 그 결과는 텁목의 공산주의라는 괴물을 통해 우리는 참사를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땅을 통한 과도한 욕심은 어떤 식으로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멀리 벗어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그리스도인들부터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의 법을 지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이 사회가 헌탁스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양육된 신실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정치경제학자들이

정계와

제계와

공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땅에

대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

지

말야

한다.

성경의 법은 전혀 복잡하지 않다. 땅에 대한 법이나 땅의 세금을 단순화해야 한다. 물론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목회자들의 몫이 아닌 크리스천 경제학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할 일이다. 이러한 운동의 기운이 꿈틀댈 때 이 땅을 떠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그 때 하나님도 이 땅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우리 계례의 땅이 그리 살기 어려운 땅이라고 여겨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주신 아주 살 만한 땅이다. 하나님의 땅의 법에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로 밥 먹고 사는 사람과 정치인들과 국세청 세무 인력을 절반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아니 그보다 더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토지를 복잡한 세금 방식으로 묶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

복잡하고 번역 많은 우리의 입시제도가 금수저들에게 유리한 불공평한 죄악의 입시제도로 바뀐 것과 유사하다.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는 입시에 그리 입시제도를 복잡다단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복잡한 입시제도란 당연히 들어갈 사람을 탈락시키고 엉뚱한 사람을 뽑을 확률이 증가하였다는 것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다. 토지법을 누리기로 만든 복잡한 세금 방식이란 복잡한 입시제도와 그 원리에 있어 전혀 다른 바가 없다. 오로지 부정의 개입과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다.

야자와 무식자들도 수긍할 만한 단순한 토지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약자들도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한다. 이 단순하고 용이한 땅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땅의 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목회자들의 몫이 아닌 크리스천 경제학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할 일이다.

이러한 운동의 기운이 꿈틀댈 때 이 땅을 떠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그 때 하나님도 이 땅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우리 계례의 땅이 그리 살기 어려운 땅이라고 여겨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주신 아주 살 만한 땅이다. 하나님의 땅의 법에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 한국을 사랑한 영적 거성 빌리그레함 목사의 별세를 애도하며

### 한국교회건강연구원 원장 이효상 목사



교회건강연구원장 이효상 목사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도자인 빌리 그雷합 목사가 21일 몬트리올의 자택에서 향년 99세로 별세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그雷합 목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주님의 품에 안식하게 되었다.

그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1918년 11월 노스캐롤라이나 주 살럿에서 태어난 그雷합 목사는 1940년 플로리다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로스엔젤레스(LA) 전도대회를 인도하면서 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빌리 그雷합 전도협회'를 설립해 전 세계

적인 선교에 나서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자리매김했다.

그雷합 목사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별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인 전쟁중이던 1952년 한국을 방문해 미군들을 위로하고,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각종 접회를 통해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 성탄절에는 경무대(警武臺)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만나 대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 전도집회의 음반을 1953년 발매하였다. 그의 설교가 담긴 타이틀은 'Let Freedom Ring(자유가 울리 하라)'이었다. 또 음반에는 이승만 대통령과의 대담을 함께 수록하여 한국에 전쟁중에 있던 한국에 대한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과 한국교회가 공산화를 막는데 기여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하였다.

전쟁이 끝난 1956년 다시 방문하여 한경직 목사와 함께 한국교회의 부흥과 재건에 복음전파로 기여하였다. 한국교회는 그雷합 목사에게 많은 빚을 졌다. 그것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영적 지원이었다. 한국교회의 금성장에는 1907년 원산대부 흥 이후 70년대에 수많은 부흥성회 이외에 대부흥운동이 있었다. 73년 빌리그雷합 전도집회, 엑스폴로 74'가 바로 그것이었다.

1950년대 이후 73년 다시 한국을 방문한 그雷합 목사는 접회의 시작에 "한국은 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그를 통하여 필자는 한국과 한국민을 사랑하는 그의 심정을 느끼게 하였다. 1973년 이의도 5.16광장 및 전국을 투어하며 열린 그雷합 목사의 설교는 복음을 알기 쉽게 전하여 연인원 50만명이 목표였으나 100만명이 참여하는 등 한국교회가 하나님되면 하나님여 역사하신다는 가능성과 함께 한국교회가 폭발적 성장을 가져오는 접화의 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이는 한국 개신교계의 역사적 명장면으로 꼽힌다. 그雷합 목사 자신도 "2천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크고 역사적인 전도의 날이며, 한국 어느 곳에서나 영적인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감격을 쏟아낸 바도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는 5천만 민족의 복음화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그의 메시지에는 '북한 동포해방'을 위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교회의 재건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1972년 '빌리 그雷합 전도집회', 1974년 '엑스폴로 74' 접회로 이어진 전도와 철야기도, 산기도의 열정으로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다. 엑스폴로 74 전도집회에는 334만 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했고, 100만명의 결신자를 내었다. 권위주의 통치시절 국민들의 영적 통로 역할을 했던 이런 영적 전도집회가 종교적 차원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에서도 선하고 큰 영향을 미쳤다.

1980년 '나는 찾았네' '세계복음화대성회' 등에 설교자로 꾸준히 방문해 한국 교회 부흥의 불을 지폈고, 그런가하면 1990년대에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기도 했다. 1994년에는 북한을 방문해 당시 김일성 주석과 면담을 갖고 성경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들 프랭클린 그雷합 목사

역시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며 구호 활동을 펼치고 역시 평양 봉수교회에서 설교하였다.

별세하기 얼마전까지 그雷합 목사는 "내 남은 생애 가운데 한국의 남북이 통일된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 구하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통일은 꼭 이루어진다"고 당부했다.

그雷합 목사는 60여년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설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2억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영적지도자로서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이후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모든 미국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도 활동했다. 불꽃같은 삶을 산 복음주의자 그雷합 목사의 별세를 통해 한국교회도 영적 거성을 잊은 아픔으로 함께 애도하며, 한국교회에도 빌리 그雷합처럼 복음적 영성과 더불어 사회적 균형감각을 지닌 복음 전파에 일생을 건 전도자로서의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큰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할 때이다.

###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국제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 고난의 계절(마 4:1-11)



부산교회 조성노 목사

(마 4:1-11, 개정)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꽉대기여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밭에서 밭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현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매년 사순절 첫째주일에는 오늘 본문

으로 설교하는 게 개신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부활절 전 고난기간이 왜 굳이 40 일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40일간의 광야고행을 그 기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째주일에는 늘 주님의 40일간의 금식기도와 마귀에게 당한 시험의 의미를 되새기는 게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동양권에서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당한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세 번씩입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은 어쨌든 마음이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같은 분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공자님은 눈에서 불혹(不惑)이라고 했습니다. 더는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인데 40세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주님은 아직 40이 아니어서 수양이 부족해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공자님에 따르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불혹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순간까지 유혹에 시달립니다. 과제가 크면 클수록 그 유혹도 그만큼 큽니다. 주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물질지상주의, 맘몬이음을 강요합니다. 이것이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저절하게 기도하며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 겁니다. 당시 주님이 당한 유혹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겪고 당하는 가장 보편적인 유혹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당하면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시험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첫 시험은 둘을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배고프고 목마른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필요 없는 한 계상행입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마귀는 주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당연히 떡으로 유혹합니다. 안 그래도 광야에 널리 퍼져나온 떡멩이가 떡으로 보이는데 그 둘을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의 말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님은 둘이 떡이 되게 해서 주린 배도 채우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떡은 가장 절실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란 듯이 둘로 떡을 만들어 주린 배도 채우고, 보란 듯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4절에서 정답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귀는 떡 제일주의, 물질지상주의, 맘몬이음을 강요합니다. 이것이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저절하게 기도하며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 겁니다. 당시 주님이 당한 유혹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인은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버린 에서의 후에들입니다. 우리는 팔죽 한 그릇이면 양심도 신앙도 하나님도 팔아버릴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끼만 있으면 됩니다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땀만 필요 한 육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두 떡에만 미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둘로 떡을 만들습니까? 그럼에도 보십시오. 우리 사회의 온갖 불법, 편법, 투기, 뇌물, 비자금 등은 모두 둘로 떡을 만들자는 반칙이지요. 우리는 자기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40일을 굶으시고도 떡으로만 이라는 마귀의 유혹을 칼처럼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평생 뼈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꽉대기에서 뛰어내리라입니다. 5절 이하입니다.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꽉대기여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만들어 뱀에 둘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정신적인 시험, 명예심, 허영심, 영웅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얼마나 교활한 시험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 공생애를 앞두고 계십니다. 만일 성전 꽉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텔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을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번 역시도 그 절호의 기회를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전 꽉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불경한 일입니다. 뛰어내려서 죽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임을 증명하겠다고 겁을 유행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네 믿음이 좋다고 하시며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의 장난이나 영웅심, 허세에 놀라지 않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면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파트 꽉대기에서 올라가 뛰어내리면 베이비 백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생심 따위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주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 특이한 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까요? 하나님만 이라는 절대가 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하나님만 이라는 절대를 놓치지 맙시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마귀의 유혹에는 백신이나 면역이 없습니다. 그 유혹은 날마다 순간마다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처럼 우리도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디 갈수록 더 교활해지는 마귀의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유혹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 [아침을 여는 기도] 질그릇 같은 제 안에

#### 사랑의 하나님!

저의 생명은 질그릇 같이 연약합니다. 질그릇 같은 제 안에 하나님계십니다.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잘 살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광에 하늘의 보배가 있습니다. “여우도 꿀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눅

9:58) 목수 출신, 집도 없고 차림도 남루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쉽게 따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나라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신앙이 정말 부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십니다. 이 길을 나와 함께 가겠느냐하시면서 예수님은 홀로 그

십니다. 세상을 거꾸로 간다는 결단 없이 어떻게 주님을 뒤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걸로 끌이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는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앞이 밝게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한영도 받지 못하고 채찍 맞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길을 나와 함께 가겠느냐하시면서 예수님은 홀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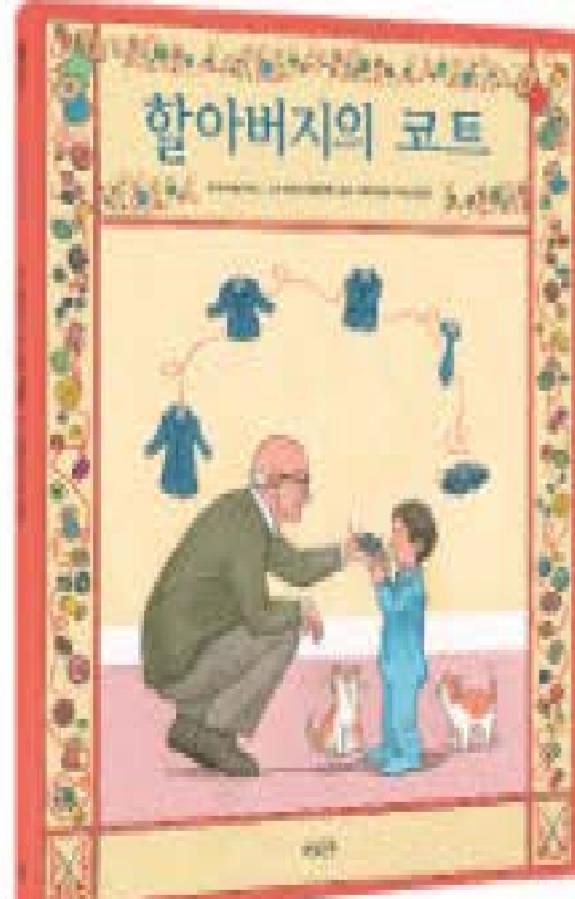
길을 외롭게 가셨습니다.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지니신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돌아오지 못할 길에서 돌아 오셨습니다. 새 인간으로 갈릴리에 다시 오셨습니다. 저도 그냥 앞을 향해서 갈 뿐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 나라, 부활의 은총임에 감격합니다.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

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고난도 받고 침 벨음도 당하겠습니다. 터지고 깨지더라도 안에 계신 주님을 잘 모시게 하옵소서. 깨진 그릇이 다시 태어납니다. 깨지지 않는 그릇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부활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앞길의 희망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 뒤에 있는 길은 십자가가 있는 고난의 길입니다. 제 앞으로 찬란하

게 빛나는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부활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어깨가 아프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연요한 목사는 송실태, 송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영사와 함께 있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미

##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뜻 입을 치명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해,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죠끼를 만들고, 그 죠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런, 여전히 쓸 만해.’

하고, 오래되고, 물들었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영물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미디스트 이효재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토서 문의 02-734-7055